

현대엘리베이터

2016 JANUARY VOL. 248
www.hyundaelevator.co.kr



M.P영업부 배려와 공감으로 초고속 성장
대구지사에서 추천하는 1박 2일 여행

이달의 얼굴



1 회의는 짧고 굵게,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대구는 우리 손안에 있다는 의미일까? 시내가 환히 내려다보이는 20층에 위치한 대구지사. 월요일 아침 취재팀이 방문했을 때에는 팀별 회의가 한창이었다. 경북 울진 등을 포함해 관할 지역이 넓다 보니 주중에는 팀원 전체가 모일 기회가 많지 않다. 일주일간의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이슈 전달 등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2016년, 젊은 패기로 밝고 활기 넘치는 대구지사의 도전은 계속된다.

대구지사 정진운 사원(대구서비스팀), 장영창 기장(대구설치팀), 정주열 사원(대구영업팀), 김상훈 사원(대구서비스팀), 이상훈 사원(대구설치팀), 이혜빈 사원(대구영업팀) <사진 왼쪽부터>

2 과장이 아니라 사원이라니까요!

M.P영업부의 송도훈 사원. 처음 만났을 때 부서 내 막내라고 소개했음에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에게 직급이 과장이냐고 물어서 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얼굴만 보고 오해(?)해 미안한 마음에 이달의 얼굴로 선정했다. 본인을 꼭 과장이 아닌 사원이라 써달라고 강조한 송도훈 사원의 마지막 한마디. “현대엘리베이터 M.P영업부, 사랑합니다~”



M.P영업부 고속팀
박노학 부장, 이충건 과장, 전재우 사원

3 신뢰와 배려로 일군 노사 문화

지난해 12월 23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2015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당사 최석규 상무(CHO)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상생 고용,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60세 정년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실천, 확산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자세한 소식은 Helco Headline(20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 **신년사 1**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때**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06 ° **신년사 2**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 일류 기업이 되는 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한상호

08 ° **Theme**
당신의 **공감 능력 지수**는?

10 ° **Talk Talk**
초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책임지는 M.P영업부
배려와 공감으로 초고속 성장하다

14 ° **Tasty Road**
대구지사에서 추천하는 1박 2일 여행
역사와 낭만이 있는 도시, **대구**

18 ° **Board**
2015년 CoP 활동 성과 발표회
복지카드 온·오프라인 이용 안내

20 ° **Helco Headline**
최석규 상무(CHO), 2015 노사문화유공 ‘포장’ 수상 외

26 ° **Partner**
키워드로 보는 우석엘리베이터
국내 최고의 승강기 유지 보수 회사를 꿈꾼다

27 ° **Event**
Helco人, 당신이 궁금해요!
“나의 2016년 **새해 소망과 계획**은...”

2016 현대엘리베이터 사보 개편!

2016년부터 사보가 확 바뀝니다.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변경돼 매월 발행됩니다. 또한 사내보로 전환해 사내 소식 및 임직원 참여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사보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발행일 2016년 1월 8일 **발행인** 한상호 **편집인** 최석규 **발행처** 현대엘리베이터 홍보부(02-3670-0717)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연지동) 현대그룹빌딩 동관
편집 (주)알피코프(02-550-8228) **사진** Photo StudioD(070-4903-0825)
출력 새빛(02-2278-0693) **인쇄** 벽호인쇄(02-2273-2531)

〈현대엘리베이터〉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발행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내용 및 사진, 외부 필자의 글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때

존경하는 현대그룹 임직원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던 해로 기억될 2015년을 뒤로하고,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말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지난해를 돌아해보면
우리 현대그룹은 생존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활로 찾기가 충분치 못했으며,
올해에도 노력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하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선진국, 신흥국 모두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금융 불안과 원자재 가격 약세가 전망되는 등
대내외 환경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를 공식화한 것은
성장이 둔화되는 거시적 패러다임 속에서
양적 변화와 대비되는 질적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그룹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고
질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2016년을 설계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원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우량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 속에서 발현되는 잠재적인 기회를 발 빠르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성공의 열쇠는
과감한 변화의 시도를 위한 자신감과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현대그룹도
고객의 새로운 니즈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업 역량을 확보하고
R&D 고도화 등 원천적인 기술 경쟁 우위를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둘째,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기경영'을 활성화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지속되는 위기에 대응해왔으며
지금의 역량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 발전시켜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목표 부여와 최고의 성과 달성을 위해
자신만의 관리 전략을 최적화하고 추진하는
'자기경영'을 습관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회사는 자기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교육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움으로의 갈망'을 내부 동력화해야 합니다.

경계를 허무는 변화의 폭과 속도에
놀라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새로움으로의 갈망'이라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등장한 세계적 기업들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움 자체를 추구하는 내부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도 결과물, 일회성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과 일상화'의 사고방식을 통해
'새로움으로의 갈망'을 우리 조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움으로의 갈망'이 조직의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질이 요구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혜안,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이 그것입니다.
동시에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조직 간 벽에 갇혀 있지 않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각자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 사람에게 축적되고 상호 영향을 주며
연관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역동성'이 상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들께서는 '새로움으로의 갈망'을 통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화해 협력과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는 소임을 이어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남북 당국의 8·25 합의 이후
민간 교류가 늘고 이산가족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교류 협력을 지속하며 상호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역사의 큰 흐름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그룹은 남북경협 선구자로서
공정과 희망의 자세를 가지고 역사의 흐름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나가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그룹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밝히는 새해처럼
새날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갑시다.
각자의 위치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역량을 배가하여 현대그룹의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새해 임직원 여러분 모두와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4일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 일류 기업이 되는 길

존경하는 현대엘리베이터 가족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2간지 가운데 병신년을 상징하는 원숭이는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동물로 재주가 많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장수와 부귀,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웃음 그리고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1위 승강기 기업으로서의 저력을 대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9년 연속 신규 설치 부문 1위 수성,
유상 보수 1위 달성, 국내 최초 더블 데크 엘리베이터,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최초와 최고 기록을 잇달아 수립했으며
전사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전개한 결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9회
국가생산성대상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켓 리더로서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 최초의
승강기기술교육원을 설립하는 등 소중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온 힘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 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든 남과 같은 길을 걷거나 남을 흉내
내서는 일류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만의 길을
개척하고, 현대엘리베이터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계 일류, The World's First Class의 반열에 올랐다 할 것입니다.
2016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자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수익성 극대화입니다.

이를 위해 제품과 상품의 품질 향상 노력을 부단히 하고,
효율 높은 사업 모델을 국내에서 검증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마켓 확대입니다.

중국과 브라질 생산 기지의 역량 확대와 더불어 터키,
인도, 동남아 등 해외 네트워크의 법인화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영업 조직을 강화하여 글로벌 고객들에게 현대엘리베이터의
브랜드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셋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100년을 영속하는 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갖추고 R&D 체계 고도화와
중장기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또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업이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과 함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일류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심을 잃지 말고 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사람의 몸속에서는 매일 10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소멸하고
그와 같은 수의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 활동을 시작합니다.
늘 같은 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이
이뤄지기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가 모여 건강한 조직을 이루고, 건강한 조직이
모여 건강한 신체를 구성하듯 기업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복장, 매너, 업무 역량에 이르기까지 일류가 되기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야만 조직도 기업도 일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저 없이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일류입니다. 글로벌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세계시장에서 두드러지 않는 자에게 문을 열어줄 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을 갈고닦아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첨단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했을 때 비로소 세계의 고객은 우리에게 문을 열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집요하게 관찰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십시오.

현대엘리베이터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우리를 평가하는 고객과
사회의 기준은 품질, 윤리, 안전, 환경, 공정 거래, 사회 기여에
이르기까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작은 티끌로 치부하던 관행들이 언제든 회사의
위상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독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등과 달리 일류는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걷는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확고한 지표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풍파에도 오롯이
현대엘리베이터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새롭게 다짐한 목표를 이루시고,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4일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한상호

한 상 호



당신의 공감 능력 지수는?

다양한 인적 자원이 모여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소통은 조직 활성화의 원동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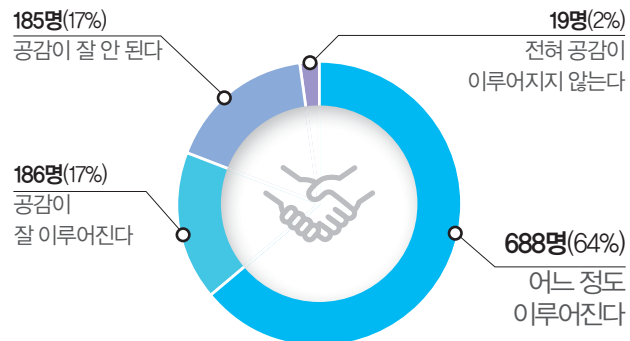
소통을 위한 첫 단추인 '공감 능력'. 공감은 한 사안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심리 작용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직원들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 설문 기간 2015년 12월 23일~28일 • 참여자 수 1,0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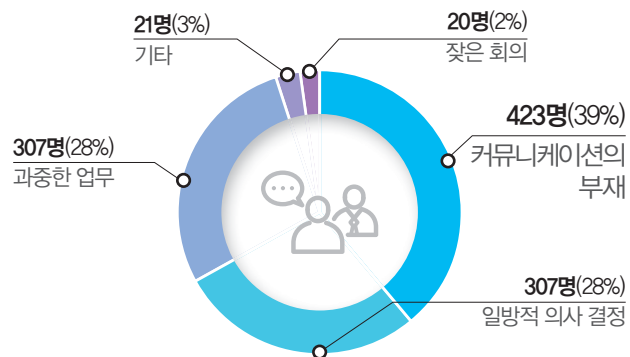
Q 직장 내에서 공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설문에 응답한 직원의 80%가량이 직장 내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17%(186명)는 잘 이루어진다고 긍정적으로 답하는가 하면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2%인 19명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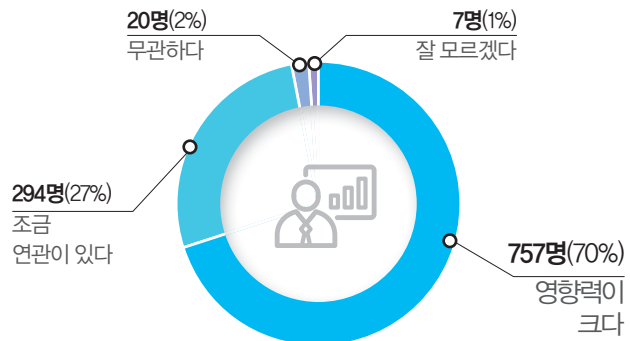
Q 공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입니까?

부서 내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공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원인이라고 답한 경우도 꽤 됐다. 세대 차나 경직된 문화, 나폴레옹식 리더십, 중간 역할자의 부재 등의 답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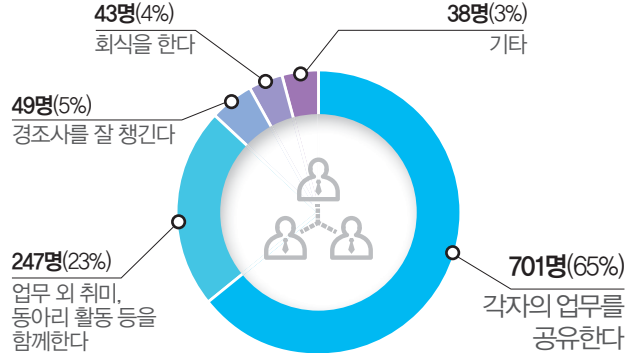
Q 공감 능력과 업무 성과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까요?

직원들의 대부분은 공감 능력이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있다. 영향력이 크다고 답한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고 조금 연관이 있다는 대답도 27%로, 97%가량이 업무에서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부서원끼리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업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회식보다는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 외 티타임 등을 통해 대화를 자주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장에서 공감 능력 키우는 법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

직장 내 공감 능력과 업무 능력은 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회사원 상담 사례를 보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상사가 일에 대해 잘잘못을 지적하면서 인격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경우를 꼽았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상사 입장에서는 부서의 성과는 물론 자신의 입지와도 연관된 일을 직원이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01 일 중심 사고가 공감 능력을 방해한다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인 회사에서 사람은 뒷전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일 중심적인 사고로 사람을 대한다면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 역시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상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팀원들을 끌고 가려다 보니 다소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상사의 말에 “왜 나만 지적하느냐”고 반응하는 사원이나 아랫사람의 대답을 말대꾸로 여기는 윗사람 등이 해당한다.

02 성숙한 자세로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는 성숙한 자세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보너스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의심이 많아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내재된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03 대화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추임새를 넣는다

상대에게 공감하려면 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공부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표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때 “네”, “그렇군요”와 같은 추임새를 넣으면 상대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상대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말만 하는 태도는 바꾸는 것이 좋다.



04 직급에 따라 공감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

팀장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한다. “열심히 했다”, “애쓰다”같이 격려와 긍정의 말 자체만으로도 공감이 형성된다. 그런데 일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사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기다리는 것이다. 윗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말만 한다면 서로 힘들다. 따라서 윗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윗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를 메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면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상사라면 결재한 장을 받더라도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기안을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와?”라고 하는 것도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동료 동료끼리 말을 편하게 하다 보면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거나 사생활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다. 편한 것은 좋지만 나름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Advisor

도움말을 준 김용태는 햇볼트리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심리치료상담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관한 지침서인 〈가짜감정(멘스토리)〉에서 성숙한 어른의 길에 들어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책임지는 M.P영업부 배려와 공감으로 초고속 성장하다

아침부터 우렁찬 웃음소리 가득한 M.P영업부와 함께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M.P영업부는 고속 엘리베이터와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다. 수직운송설비 컨설팅과 수주 활동을 직접 하는, 다른 회사에는 없는 특화된 부서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현대엘리베이터의 M.P영업부는 그야말로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손꼽히는 경력자들이 모인 드림팀이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는 회의 안 해요”

M.P영업부는 “회의 시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일이 잘 안 되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새로운 일도 평소처럼 팀별로 3~4명씩 모여서 금방 논의하면 된다고 딱 잘라 얘기했다.

부서의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는 연초에 한 번 하는 워크숍에서 논의를 통해 공유하고 공감한다. 이후엔 같은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라고 한다.

그러면 상사가 단독방(휴대폰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아닐까?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 단독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식을 할 때만 잠시 만들었다 없애죠.” 그렇다고 부서원끼리 친밀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다. 특히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 앞에선 앞다퉂 말미 많아진다. 회식 자리에서도 주로 운동 얘기를 하는데, 골프 치는 사람이 많아 골프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지난해 말엔 M.P영업부 주관으로 타부서와 농구 대회를 열어 이기기도 했다. 과장 이하 선수들이 출전한 이 경기에서는 특히 스타플레이어 이승후 과장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한다. 부서 전체가 운동으로 하나 되어 뽕뽕 뭉칠 수 있는 기회였다. 회식 메뉴에 대해 물으니 족발집엔 안 간다고 한다. 구성원들 각자의 취향을 모두 존중하다 보니 머리, 발, 내장으로 만든 음식까지 제외하게 됐다는 대목에서 웃어 넘기기엔 묵직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우리 부서 자랑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

배려가 가장 중요해요. 경쟁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조직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 부서원들은 개별 행동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더불어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 M.P영업부 부서장 우남욱 상무

다로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팀원들의 영업 센스가 상당히 높아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스스로 역량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일하기가 편해요.

— 고속팀 팀장 박노학 부장

단합이 잘돼요.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면 부서원들이 어떻게든 같은 마음이 되려고 노력해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니 큰 이견이 없죠.

— 고속팀 전재우 사원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유로움 속에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줍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 가능한 것 같아요.

— 고속팀 이충건 과장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기술지원팀은 하는 일이 달라요. 하지만 영업 팀장님들이 기술팀 출신이라 저희가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M.P기술지원팀 김호수 과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도 충분히 이해되죠.

— 고속리모델링팀 김정만 과장

믿고 기다려줘요

부서장님부터 믿고 기다려주셔서 서로에게 신뢰가 더 많이 쌓이고 부서원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고속리모델링팀 팀장 박남배 차장

나만의 소통 노하우는?

많이 들어주기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 컨설팅팀 팀장 남무석 부장

문자 먼저

보고할 일이 있으면 문자로 간략하게 내용을 알린 후 직접 만나서 얘기합니다. 보고받는 사람에게도 그사이 생각할 시간이 생겨 효율적이에요.

- 컨설팅팀 김두영 과장

무엇이든 함께하기

부서원들은 가족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업무 외에도 취미와 생각, 고민을 공유하면 회사 생활이 보다 즐거워져요.

- 고속리모델링팀 이승후 과장

사소한 일도 보고하기

작은 일도 보고해 선배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입사한 지 이제 1년 되었는데,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 M.P기술지원팀 정예현 사원

관심사 찾기

상대방과 같은 관심사를 찾아 이야기거리를 만들면 말이 잘 통해요.

- M.P기술지원팀 김영민 차장

기회 잡기

부서 내 막내지만 발언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요. 선배들의 열린 마음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요.

- 컨설팅팀 송도훈 사원

먼저 시도하기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직접 몸으로 시행해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죠.

- M.P기술지원팀 김태규 대리

소통의 키, 배려와 공감

M.P영업부는 경력 직원과 젊은 층이 두루 많은 편이다. 하지만 격의 없이 어울리다 보니 누가 팀에 늦게 합류한 사람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부서 내 막내 송도훈 사원은 선배들이 개인적인 일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니 일하는 게 즐겁다고 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이직한 김태규 대리는 처음엔 대기업이라서 조직 내 문화가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쉽게 융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서장부터 농담을 건네며 적응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준 덕분이다.

후배 직원들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부서 내 총무를 담당하는 전재우 사원은 회식 등 행사를 공지하고 회식 장소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결하며 굿은일, 바쁜 일을 도맡아 한다. 팀장들은 요즘 사원들이 예전보다 성장 속도가 몇 년 정도 빨라 실무에 금방 적응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권위를 앞세우는 경직된 조직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유연한 조직의 면모가 돋보인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공유

M.P영업부에는 다른 부서에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부서원들만 볼 수 있는 공용 폴더다. 고객과의 만남 등 특별한 활동이 있으면 내용을 기록해 다른 부서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3년째 운영 중인데 특수 상황이 생기거나 해결책이

M.P영업부
컨설팅팀

M.P영업부
고속팀

M.P영업부
M.P기술지원팀

M.P영업부
고속리모델링팀

M.P(Major Project)영업부는?

M.P영업부는 올해 5년 차에 접어든다. 초기엔 고속시장 점유율 30% 미만으로 동종 분야 3위 정도였지만 2014년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지난해 시장점유율 65%를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울산관광호텔, 부산 옹호만 THE W, 일산 Y시티, 래미안 강동팰리스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해 올해가 더욱 기대된다. M.P영업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300m/s 이상)를 담당하는 컨설팅팀, 고속 엘리베이터(180~240m/s)를 담당하는 고속팀,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고속리모델링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승인 등을 담당하는 M.P기술지원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고속리모델링팀은 지난해 신설되었는데 해상빌딩, 도심공항 등을 수주함으로써 강남 테헤란로 입성에 성공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 고속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영업을 직접 맡는다.

대구지사에서 추천하는 1박 2일 여행 역사와 낭만이 있는 도시, 대구

구석구석 옛 정취가 느껴지는 대구에 고층빌딩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며 도시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대구지사를 찾았다. 그리고 대구지사 3인방이 추천하는 맛집과 관광지를 소개한다.



대구의 랜드마크를 만든다

대구지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전국 지사 중 '2015년 전년 대비 성장률'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대구지사에서 설치한 57m 길이의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는 신남역의 명물로 떠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사는 그만큼 사원 수도 많다. 대구영업팀·대구설치팀·대구서비스팀으로 나뉜 총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이 대구·경북 지역 출신으로 패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김천혁신도시, 신서혁신도시, 달성 테크로폴리스 단지 등에서 건축 붐이 일면서 한 해를 분주하게 보냈다. 또 동대구역 일대 3만6,000㎡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의 연결 브리지를 수주하면서 올 4월 착공을 시작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환승센터의 연결 브리지는 180m에 달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설치팀 홍만유 차장은 100억원 규모의 수주라는 것 외에 더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세계건설과의 거래를 처음 성사시켰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릅니다. 따라서 2016년 총력을 기울일 사업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로

유기적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장점인 대구지사. 올해도 대구 지역을 ‘들어올리기’ 위해 파이팅을 외쳐본다.

빠른 정보 공유가 영업의 동력! 대구영업팀

2015년, 대구영업팀은 전년 대비 112%의 성과를 거뒀다. 대형 건설사가 많지 않은 대구에서 ‘이삭줍기’하듯이 소형 건설사 위주로 수주해 이룬 성과라 더욱 값지다. 박호균 차장은 영업 노하우와 관련해 평소 팀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다. “물건을 팔러 다니지 말고 내 마음을 팔고 기술을 팔아라. 그래야 고객이 내 마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팀은 각자가 팀장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과 잘못된 것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 정보 공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바로 채택해 실행하다보니 팀이 더욱 활성화됐다고 한다.

2016년에는 대구 지역의 90% 이상 수주하겠다는 자세로 현장을 누빌 계획이다. 특히 아직까지 발을 담그지 못한 미개척 지역 중 두 곳은 꼭 수주하고 말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with me’ 자세로 달리는 대구설치팀

홍만유 차장을 필두로 총 1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대구설치팀은 그 어느 부서보다 단결이 잘된다. 2015년 건축 붐이 일면서 착공 대수가 전년 대비 60% 늘어난 1,500대

라는 성과를 거뒀다.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외주 지원도 받고 자체적으로도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올해에는 20% 증가한 1,800대를 목표로 하는 등 홍만유 차장의 각오가 남다르다.

“구성원 간 인화단결이 잘되는 게 우리 팀의 장점입니다. 개인보다 함께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기술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도 ‘follow me’가 아닌 ‘with me’ 자세로 팀원들과 열심히 뛰겠습니다.”

노하우를 전수하며 소통하는 대구서비스팀

대구·경북 지역의 유지 보수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서비스팀

은 기술지원팀, 보수자재팀을 포함해 총 31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서비스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대수는 9,000대가량이다.

“지금까지는 협력사에 90% 비율의 유지 보수를 맡겨왔다면 2016년부터는 자체 유지 보수 비율을 20% 정도로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완공 이후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황학구 부장을 대신해 이기현 기장이 올해의 계획을 말했다. 2~3년 전부터 젊은 사원이 많이 합류하면서 분위기도 젊고 활기차졌다는 대구서비스팀. 선배들이 전수한 노하우를 후배들이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팀원이 증가한 만큼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원활한 소통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설치4부 대구설치팀 서보민 사원.
정형교 기원, 김창욱 차장, 장영창 기장.
홍만유 차장, 전원중 기사, 김지훈 사원.
최광용 직장, 이상훈 사원(왼쪽부터)



영업5부 대구영업팀 성창경 과장, 정성원 사원(영업기술부 파견), 이혜빈 사원.
박호균 차장, 김영호 차장, 백상우 대리, 정주열 사원(왼쪽 뒷줄부터 시계 방향)



고객지원4부 대구서비스팀 김동우 기사, 도임진 사원, 김승진 기사, 김동수 직장, 신재철 기원, 이동조 기원, 우선화 사원, 박승필 기사, 박상현 기사, 이진원 기사, 김상훈 사원, 강무중 대리, 이원철 과장, 이규호 대리, 정진운 사원, 이기현 기장, 신기원 기원, 박기현 직장
(왼쪽 뒷줄부터 시계 방향)

현지인처럼 즐기는 대구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옛 정취를 느끼는 시간 여행

조선시대에는 대구가 서울, 평양과 더불어 3대 도시 중 하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란민이 이어지던 도시였다. 여기저기서 근대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첫째 날에는 최근 새 단장을 마친 수성못과 근대문화골목,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거닐면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수성못

대구 시민들에게 낭만과 추억의 장소인 수성못. 2014년 전망대, 댁 로드, 수상 무대, 산책로 등을 갖추면서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수시로 축제가 열릴 뿐 아니라 여름에는 더위를 날려주는 분수 쇼가 펼쳐져 대구 시민들의 오아시스라 할 만하다. 겨울에는 주위에 형성된 커피 거리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 풍경을 감상해보자.

위치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112 문의 053-666-2000(수성구청)

대구지사
맛집 추천 3인방



대구영업팀 백상우 대리

철정시장이 고향인 대구 토박이다. 회식이나 외식 아이템으로 고기를 선호하는 만큼 대구의 웬만한 고깃집은 전부 섭렵했다.

대구서비스팀 이원철 과장

짬뽕, 콩국수 같은 면 요리를 좋아한다. 특히 집밥 국물이 일품인 몽짬뽕은 술 마신 다음 날 해장하기에 좋고, 칠성동에 있는 할매콩국수는 겨울철에도 별미라고.

대구설치팀 정형교 기원

"대구 사람들은 막창을 안 먹는다"고 말언하는 그는 형지인도 잘 모르는 숨은 맛집을 꿰고 있다. 육회와 산낙지의 조화가 향상적인 '대머리육회탕탕'이 그중 하나.

둘째 날 색다른 재미를 주는 하늘 여행

2015년 4월에 개통한 도시 철도형 모노레일 덕분에 대구 여행이 조금 더 편해지고 즐거워졌다. 서문시장, 달성공원, 수성못 등과 연결돼 있는데, 하늘 위를 달리면서 대구 시내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특색 있는 요리를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착한 먹거리 골목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정형교 기원 추천



송림식당

40년 전통의 복어매운탕 전문점으로 점심시간에는 항상 주변 직장인들로 붐빈다. 국내산 복어를 양은 냄비에 끓여 먹는 복어매운탕은 시원한 국물 맛이 감탄을 자아내는데, 콩나물을 건져 양념장에 비벼 먹는 맛 역시 일품이다. 건더기를 다 먹은 후에는 라면을 넣어 끓여 먹을 수 있다. 복어매운탕 7,000원, 복어수육 4만원 등으로 가격도 착하다.

위치 대구시 중구 국제보성로131길 56
문의 053-424-3838(1·3·5째 일요일 휴무)



83타워

대구 시내 야경을 한눈에 보면서 여행을 마무리하기 좋은 곳이다. 두류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전파 송출용 탑으로, 우방타워로 불린다. 2011년 이랜드가 인수하면서 83타워로 바뀌었다.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전망대와 스카이라운지가 나온다. 종합테마공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낮부터 시간을 보내기에도 적당하다.

위치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문의 053-620-0001

서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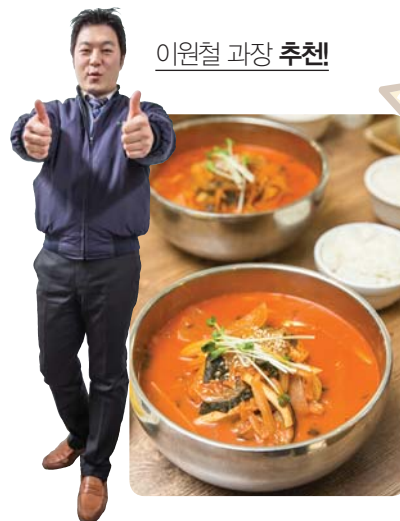
조선시대 중기부터 형성된 대구·경북 지역의 최대 전통 시장으로 평일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약 5,500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 그중에서 주단, 포묵 등 섬유 관련 품목이 가장 유명하다. 곳곳에 펼쳐진 좌판에서 칼국수, 찜갈비, 호떡 등을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인근의 미성당에 들러 납작만두도 한 번쯤 먹어볼 만하다.

위치 대구시 중구 큰장로26길 45

문의 053-661-3266(서문시장 관광안내소)



납작만두



이원철 과장 추천

몽짬뽕

짬뽕 하면 맵고 시원한 국물이 떠오르는데, 색다른 국물 맛을 원한다면 몽짬뽕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매콤하고 진한 국물이 자꾸 생각나는 맛이다. 한식을 요리하다 5년 전 짬뽕집을 냈다는 주방장은 육수 대신 물을 넣고 잘 볶는 게 국물 맛의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메뉴는 몽짬뽕, 짬뽕밥, 옛날짜장면 세 가지밖에 없다. 몽짬뽕 6,000원. 위치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30길 12 문의 053-782-5630(일요일 휴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2009년 방천시장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시장 점포에 입주한 작가들이 가수 김광석 관련 벽화를 그리고 김광석 노래를 틀어놓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카페와 액세서리, 추억의 물건을 판매하는 곳 등 아가자기한 볼거리도 많다. 방천시장 안에는 질 좋은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이 몇 군데 있으니 참고할 것.

위치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450길 문의 053-661-2000(중구청)



근대문화골목

이국적이면서도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근대문화골목 코스는 청라언덕에서 출발해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을 거쳐 화교협회에 이르는 1.64km 거리로, 다 둘러보려면 2시간가량 소요된다. 특히 청라언덕은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사택을 짓고 나무를 심은 곳으로 지금도 그 정취가 남아 있다.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골목 투어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위치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029(청라언덕)
문의 053-661-2194, www.jung.daegu.kr/alley(중구청)



백상우 대리 추천

돈꾸앙

돈꾸앙은 참나무로 초벌구이를 해서 고기에 훈제 향을 가미한 고깃집이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훈제 삼겹살처럼 얇지 않고 두툼해 씹는 맛이 좋고 육즙도 풍부하다. 고기를 다 먹었다고 일어서면 안 된다. 매콤한 김치볶음밥은 빼놓지 않고 맛봐야 하며, 달걀 프라이는

무한 제공되니 후한 인심 또한 느껴보자. 대봉도서관 근처에 있다. 삼겹살 1인분 8,000원.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로 197 문의 053-248-9202

2015년 CoP 활동 성과 발표회 창의적 아이디어로 시너지 창출 기대

총 8개 팀이 참여한 CoP 활동 성과 발표회 개최

자발적인 학습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교육 다양성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CoP(Community of Practice, 학습동아리)가 적극적인 팀별 활동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월 23일, 본사 1층 세미나실에서 '2015년 CoP 활동 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업무 개선 5개 팀, 자격증 취득 3개 팀 등 총 8개 팀이 참가한 이번 발표회는 문완기·최석규·채홍룡 상무가 심사를 맡아 창의성, 업무적 용도, 결과물 완성도, 발표력, 참여율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펼쳤다. 심사 결과, 공정거래실무연구회가 최우수상을, 조용한기계연구회와 ANSYS 활용연구회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실무연구회, 최우수상 수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를 작성한 공정거래실무연구회는 <경쟁저널> 등재(2015년 11월호), 입법 개선안 국회 발표(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10월 29일)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건설사 부도로 인한 미지급 회사 채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우수상을 받은 조용한기계연구회는 두 가지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첫째, '기계실 로프 방음 박스 방음 효과 시험·분석'은 타입별로 소음값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사별로 다른 방음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일화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 '가 천장 방진고무 최적 설계 및 방진 효과 시험·분석'에서는 기존 제품과 성능 차이가 없는 최적 설계로 자재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실적 기준으로 예상 절감액은 연 8억원에 이른다.

또 다른 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ANSYS 활용연구회로 'ANSYS 적용 TEST' 및 활용 지침서를 마련했



최우수상을 받은
공정거래실무연구회의
논문이 실린 <경쟁저널>
(2015년 11월호).

다. 카 도어(Car Door), 선박용 카 케이블 행어(Car Cable Hanger), 레일 브래킷(Rail Bracket)의 최적화에 관한 것으로 자재비 절감, 용접부 제거로 설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기대 이상의 성과물에 만족

이날 수상한 3개 팀에는 대표이사 표창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부상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각각 25만원이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물에 만족한다. CoP를 활성화해 많은 팀이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길 희망한다"고 심사 총평을 밝혔다.

2015년 CoP 활동 성과에 힘입어 현재 2차 CoP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 모집 안내 및 승인을 받고 3월부터 활동하면 되는데, 팀은 최소 6명이 기준이며, 직무 관련 자유 주제를 정해 제출해야 한다. 사전 계획서와 월 활동 실적 보고를 할 경우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테마와 직무의 구성원 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알고 쓰면 더 누릴 수 있다 복지카드 온·오프라인 이용 안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복지카드는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생활 지원과 자기계발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다양한 선택 보장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수혜의 형평성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직급별로 일정 금액(포인트)을 부여하여 온라인(복지몰)은 물론 오프라인(신용카드)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복지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 온라인 쇼핑몰 '베네피아' 이용 방법

① 복지몰

사이트(hdel.benefia.co.kr)에 접속한 후 베네피아 복지 포인트를 확인하고 온라인 포인트를 사용한다. 포인트 직접 차감 방식으로, 통장 잔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② 최저가 포인트몰

베네피아 최저가 포인트몰의 경우 네이버 오픈 쇼핑 기준 최저가 쇼핑물로 OK캐시백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③ 제휴몰

전체 메뉴 탭의 '제휴몰'을 클릭한 후 원하는 카테고리의 복지를 클릭하면 해당 온라인 쇼핑몰로 접속된다. AK투게더몰, 롯데닷컴, GS샵에서도 포인트를 100% 사용할 수 있는데, AK투게더몰의 경우 임직원몰에서도 쇼핑이 가능하다. 상품을 선택한 후에는 '구매하기'를 클릭한 후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한다. 결제 항목에서 베네피아 포인트 조회 후 금액을 입력하면 포인트 차감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 오프라인 'KB국민카드' 발급 안내 매뉴얼

① 발급 사이트(<https://card.kbcard.com>)의 지정 링크 접속 후 앱 카드 신청 여부를 선택하고 '카드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② 본인 인증 사항 입력

③ 발급 절차에 따라 가입 정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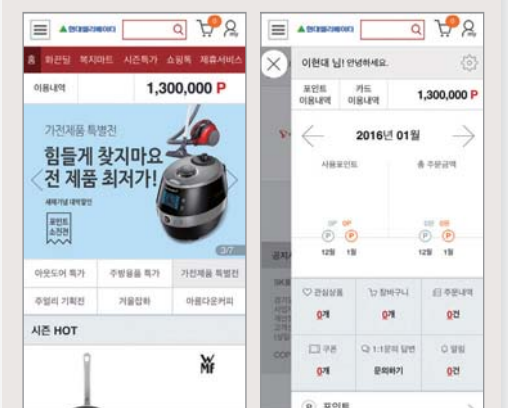


※ 주의 사항

통장 잔고가 부족해도 연체 위험이 없는 안전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추천 결제일(매월 14~27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베네피아 모바일앱 출시!

임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복지관 '베네피아 스마트 복지'를 출시했다. 복지 포인트 조회, 이용 내역 확인, 기획 상품 구매 등의 공통 기능 외에 복지카드 기능도 탑재돼 있다. 이로써 앱에서도 포인트 적용 신청, 허용 업종 조회, 카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명 브랜드 제품을 50~80% 수량 한정 특가 판매를 하는 등 오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안드로이드·iOS 기반 앱으로 앱스토어에서 '베네피아'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수상 소식

최석규 CHO, 2015 노사문화 유공 '포장' 수상

최석규 상무(CHO)가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유공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최 상무는 당사 인사담당 최고 책임자로 재직하며 무분규 27년 달성, 60세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이상 '15년), 통상임금 노사합의(14년) 등을 이끌어 내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앞서, 당사는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13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14년)에 선정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유공 포상은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및 일터혁신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 도입되었으며, 올해는 창·장년간 상생 고용,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기업 내 율타리를 넘어서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 등 노사협력 우수사례를 집중 발굴·포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해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며 장시간근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낡은 관행 개선에 앞장서온 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1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서 최고 등급 'AA' 획득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하 CP)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당사는 회사 내에 전담조직인 Compliance팀을 신설, 사내 준법경영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상호 대표이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최석규 상무)를 중심으로 각 사업본부 본부장이 참석하는 CP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는 CP운영 실적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AA 등급을 받은 곳은 41개에 불과하며, 승강기 업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최초다.



승강기 기업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최초다. 한상호 대표이사는 제막식에서 “국내 1위 승강기 기업이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품질 혁신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 한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품질경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식 가져

품질경영력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헌정비 제막식이 2015년 12월 10일 이천 본사에서 진행됐다. 품질경영력우수기업은 제조업, 공기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국표준협회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명예의 전당 헌정의 영예는 10년 이상 선정된 기업 중 별도의 심층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만 주어진다.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래 올해까지 총 1,019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기업은 17곳뿐이다.



'다자간 성과공유제 사례공유 대상' 수상

당사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15 제2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다자간 성과공유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 12월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당사는 협력사인 우진전장과 창대산업이 참여해 발굴한 첫 다자간 성과공유 사례로 '의정품 SUS 표판두께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 사례'를 발표했다. 준법지원부 문석준 과장은 “앞으로 성과공유제에 관한 자료 공유 및 확산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민수 부장, 이천시에서 표창 받아

생산부 공무환경안전팀 육민수 부장이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전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12월 2일, 이천 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하진택 사원, 봉사활동 활성화 유공 표창 수상

생산부 생산팀 하진택 사원이 경기도로부터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청은 하진택 사원이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대내외 행사



2016년 사업계획 Workshop 개최

2016년 사업계획 워크숍이 2015년 12월 1일~2일, 1박 2일 일정으로 현대중합 연수원 블루비스타(경기도 양평)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상호 대표이사과 상해, 브라질 법인장을 비롯한 전임원이 참가해 2015년 경영실적을 검토하고, 2016년 주요 경영목표와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또 2016년 경영방침인 'Global 시장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수익성 극대화 ▲글로벌 시장 확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설치부, 2015년 하반기 우수협력사 시상식 개최

2015년 하반기 설치 우수협력사 및 건설 현장 수상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시상식이 12월 21일 연지동 현대그룹사옥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한상호 대표이사, 김병호 국내승강기사업본부장, 박영기 설치담당 상무이사과 담당 부서장 및 우수협력사 대표, 우수설치팀 대표, 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수설치협력사에는 유신아이가 외 6개사, 우수설치팀으로는 대경엘리베이터 외 26개팀, QC검사 우수팀은 ㈜조봉 외 37개 팀이 선정됐다. 당사는 설치능력 발전 및 품질향상 증대를 위해 정기적인 실적평가를 거쳐 연 2회 우수설치협력사를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사,

2016년 수주 목표 달성 결의대회 가저

광주시사(영업4부 광주영업팀)에서 지난 12월 21일, '2016년 1,000억원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사 직원 외에도 광주 지역 영업 대리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Challenge for 1,000억원, We can do it!'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영업 목표 달성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식

2015년 신입사원(5급 사원) 사령장 수여식이 12월 14일 이천 본사 1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 28명에게 사령장이 수여됐으며, 신입사원 선서 및 사가제창이 이어졌다. 앞서 약 1달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신입사원들은 설치부, 설치관리부, 품질관리부 등에 부서 배치를 받았으며, 각 부서별 교육 후 업무에 임할 예정이다. 한상호 대표이사는 격려사에서 "(오늘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은)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공정관리는 물론이고 고객관리, 안전관리, 예산관리, 효율관리 등 명실상부한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회사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공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과 헌혈증 전달

당사가 2015년 12월 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환자 치료를 위한 후원금 300만원과 헌혈증 137매를 전달했다. 한상호 대표이사는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에서 치뤄진 전달식에서 "대한민국 대표 승강기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준 데 감사한다"며 "우리가 만든 엘리베이터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당사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이 2만 시간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기록한 1만 8,481시간보다 21.3% 늘어난 수치로, 임직원 1인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12.8시간으로 집계됐다. 당사는 2010년 사내 동호회나 봉사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회공헌활동을 회사차원으로 확대하고, 전 직원 봉사활동을 매년 1시간씩 늘려왔다. 전사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4년 151회였던 봉사활동은 2015년 197회로 확대됐다.



유성곤 기장,

여주 라파엘의 집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생산부 생산4팀 유성곤 기장이 여주 라파엘의 집(경기도 여주)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여주 라파엘의 집 정지훈 원장은 "유성곤 기장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참다운 나눔을 보여주었다"며 "감사와 사랑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여주 라파엘의 집은 시각장애와 함께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유 기장은 1993년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3년 동안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사회봉사단 · 사진동호회 '이천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진행

당사 사회봉사단 · 사진동호회는 2015년 12월 12일, 이천시 마장면을 방문해 15차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마장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됐다. 2012년부터 사진동호회 자체 활동으로 시작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2013년부터는 당사와 이천시와 함께 하고 있으며, 당사 대표 봉사활동으로 자리잡았다.



수주 소식

※2015년 11~12월 주요 수주 소식

국내			해외					
구분	현장명	대수	구분	현장명	국가	대수		
승강기	신규	양주옥정푸르지오	37	승강기	신규	WATERFRONT	스리랑카	118
		영주가흥동	35			BNCP HOUSING PROJECT 3	이라크	86
		고양삼송화성파크드림PATIO	44			DAICEC PROJECT VT1	인도	32
		세종시3-2생활권M6BL중흥S클래스아파트	27			HH2 LINH DAM	베트남	18
		창원자은3지구B-1BL중흥S클래스아파트	26			HEP ISTANBUL	터키	50
		세종3-3 L2	25			SM KEPPEL MIXED USE DEVELOPMENT	필리핀	38
		화성향남B7블럭	22			ATLAS MALL	아랍에미리트	20
		김천혁신3-6블럭	22			MUONG THANH KHANH HOA	베트남	10
		홍천오드카운티아파트	19			COURT MADINAH	사우디아라비아	32
		아현 아이파크	17			KENTPLUS	터키	21
	리모델링	용인역북지구D블럭골드클래스신축	12			NUROL LIFE	터키	23
		제주삼화1-5블럭	18			LUCKY ONE PHASE 2	파키스탄	26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16			COURT HAIL	사우디아라비아	24
		굴화주공1단지	29			HIGHVILL PARK 'C'	카자흐스탄	15
	서비스	재화빌딩 교체공사	5			TOWN CENTER	파나마	13
		한국개나리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6			GRASS RESIDENCES TOWER4	필리핀	6
		북항국제여객터미널	51			CAMLICA MOSQUE	터키	19
		고양삼송2차 아이파크	30			CHARBAGH	아랍에미리트	12
		울산드림한세상강변	29			COURT AL QASSIM	사우디아라비아	16
		푸른마을더샵아파트	29			GARDEN HILLS	이집트	26
		동탄2신도시신안인스빌1차	28			LEVENT LIFE	터키	10
		해미르아파트	27			RRL MALL AT JALANDHA	인도	12
		부산민락동더샵센텀포레	27			OKAN UNIVERSITY HOSPITAL	터키	15
		시흥군자배곧베르디움	27			TOWN CENTER	파나마	9
비승강기	남양주별내2차PARK	27	ATEK ADRESS TOWER	터키	6			
	우산중흥S클래스리버티	25	GOLDLAND BINH TAY PLAZA	베트남	9			
	호평1차대명루첸아파트	24	HIGHVILL PARK 'D'	카자흐스탄	8			
	N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24	BOYS HOSTEL AT JAMNAGAR	인도	12			
	래미안안암아파트	22	SMART NICHE	말레이시아	7			
	효천2지구중흥S클래스	21	89 PHUNG HUNG	베트남	7			
	청전현대아파트	21	HQC NHA TRANG	베트남	8			
	가락마을5단지아파트	20	ET372 NOAH REAL ESTATE	에티오피아	7			
	대광파인밸리골드	20	SM SUCAT REDEVELOPMENT	필리핀	8			
	주차	청주 우암동 라임미소가	2	MARKET PLAZA	파나마	11		
현대카드 부산사옥		1	PUERTA DE HIERRO	멕시코	7			
등촌동 투웨니퍼스트 2차		2	AL MANAR COMPANY	쿠웨이트	8			
용인 IMT 호텔		1	RD-201: COURT	사우디아라비아	8			
김포 라베니체마치 2차		1	COURT AL RAFHA	사우디아라비아	8			
부평동531-1공동주택		1	COURT JD SB02	사우디아라비아	8			
골든팰리스		1	RSUD KERTOSONO TAHAP 2	인도네시아	9			
목연정옴 팰리스		1	ASWAN HOSPITAL	이집트	5			
김포 라베니체마치 4차		1	GEDUNG SKPD PEKANBARU	인도네시아	10			
구포동 지움포유		1	CAMPUS UMY	인도네시아	6			
PSD	청진구역 제 1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1	GALEY CARMEL	이스라엘	6			
	성남~여주선 이천,신둔역 PSD	2	CUSTOM HOUSE	파키스탄	5			
	대구 도시철도1호선 PSD	12	LE BLANC	칠레	6			
물류	성남~여주선 여주역 외 PSD	3	ANKARA DATA CENTER	터키	7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자체샘플 자동창고	-	BINTAN LAGOON	인도네시아	5			

2015년 종무식



떡 커팅식



종무사 중인 한상호 대표이사



우수사원상 시상

현대엘리베이터 2015년 종무식

2015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이 12월 31일, 이천 본사 대강당에서 한상호 대표이사와 임원, 부서장, 연말 수상자, 정년퇴직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5년 종무식에서는 우수부서상, 기술개발상, 노사화합상, 우수사원상, 사회공헌상, 원가절감 우수상, CoP우수상, CP상 등 각종 포상과 함께 정년 퇴직자 17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한상호 대표이사는 종무사에서 “연간 생산량 400대에 불과했던 작은 회사가 월간 생산량 2,000대에 육박하는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소중히 간직해온 불굴의 도전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2015년 정년퇴직자

품질관리부	장일성	부장
설치2부	김재동	기원
설치2부	박인수	직장
설치4부	이쌍문	기원
고객지원4부	이종명	기원
고객지원6부	이영구	기장
생산부	박상철	기장

생산부	김광일	기장
생산부	하진택	기원
생산부	임건재	기원
생산부	민병산	기장
생산부	김진홍	기장
제조지원부	박병재	기장
제조지원부	남궁만철	기원
효율개선부	박도한	기장
효율개선부	김영욱	기장
효율개선부	김흥식	기원

키워드로 보는 우석엘리베이터 국내 최고의 승강기 유지 보수 회사를 꿈꾼다

우석엘리베이터는 지난 25년간 서비스 사업본부의 보수 협력사로 동반 성장해왔다. 그동안 무사고를 기록하고 직원들의 이직률 또한 낮아 타 회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인천팀

김포팀

광주팀

얼굴

32명의 현대엘리베이터 얼굴

우석엘리베이터는 인천 북부, 서부, 김포 등 인천·경인 지역의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32명의 직원이 인천팀과 김포팀, 그리고 관리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인천 지역에서는 꽤 규모가 큰 편이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수만 해도 2,300대에 이른다. 조명우 대표는 1984년 현대엘리베이터에 입사해 보수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원조 현대엘리베이터 맨이다. 1991년 우석엘리베이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만 다루다 보니 조 대표뿐 아니라 직원들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무사고

안전에 적당함이란 없다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는 만큼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다. 언제나 나의 안전을 최우선이라 여기고 일하면 고객의 안전은 자연히 뒤따른다는 것이다. 25년간 무사고로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러한 신념 덕분이다. 조명우 대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11일 '제3회 승강기 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상인 '승강기안전관리표창'을 수상했다. 조 대표는 "직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우석엘리베이터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낮은 이직률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우석엘리베이터의 특징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직원이 많은 점이다. 그만큼 유지·관리 노하우가 쌓일 수밖에 없다. 타 회사에 비해 이직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평소 조 대표를 중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사업본부와의 상호 보완 관계에서 새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빠르게 전수되고 있다.

최고

‘최고’에 걸맞은 ‘최고’의 파트너

조 대표는 올해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 현장 관리에 힘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협력사로서 승강기 유지·관리 전문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의 2016년 새해 소망과 계획은...”

포털 설문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인들의 다양한 2016년 새해 계획을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15분께는 아래와 같이 선물이 전달됩니다.

1월에도 탐날 만한 상품이 푸짐하게 준비돼 있으니 온라인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Challenge상

나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 하나. 가족 해외여행(부모님 모시고 꼭 가기!) 둘.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취득 (HOT Body!) 셋. 홍삼 매일 챙겨먹기(건강한 나를 위해) 넷. 책 20권 읽기 다섯. 주 3회 Gym 가기!! - 해외영업전략팀 이지혜 대리

새해에는 현재 투병 중이신 할머니의 병이 완쾌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미소를 띠고 계신 할머니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병문안을 자주 가서 자랑스런 손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설계2부 김성열 사원

주짓수(브라질 유술)를 배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설치3부(전주) 정다환 기사



조나단 워드 런던 향초(3명)

Happy New Year상

장롱면허 10년째인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며 운전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에는 차를 사서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려보겠습니다.^^ -Global전략기획부 장진주 사원

2016년 브라질 법인이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해가 되길. 그러기 위해 열심히 뛰며 후회라는 단어를 남기지 않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브라질법인 안진수 차장

1. 사내 많은 분께 내 이름 알리기 2. 회사는 물론 다른 모임에서도 '나'라는 존재 인정받기 3. 사보에 이름 실리기 -효율개선부 양성훈 사원

일어나라 엘리베이터! 열려라 금강산! -생산부 류하권 기장

나를 너무 사랑하는 뱃살. 옆구리살과 이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S/S기술부 김진욱 과장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그 동안의 열정을 마른 술잎 삼아 설치4부 경남지사를 우뚝 세게 하겠습니다. -설치4부(경남) 신재훈 기사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고객지원6부(광주) 이기영 기사

결혼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내와 둘이 계획한 유럽 여행을 꼭 다녀오겠습니다.^^ -고객지원1부 정재훈 기사

병신년,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언어를 순화해서, 깨끗한 우리말만을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병신년을 맞아 결정했습니다.^^) -고객지원1부 김영오 사원

스타벅스 커피 Set 기프트콘(9명)

Dream상

1월 1일부로 금연을 시작해서 담뱃값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5,000원씩.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치2부(중부) 박규웅 기사

‘모든 것에 능통할 순 없지만 모든 것과 소통할 순 있다’는 말처럼 2016년 새해엔 현재보다 더 주변과 소통하여 능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매2부 허갑 차장

경력 입사 2년 차가 되는 해인 만큼, 제가 계획한 2016년 사업 계획을 100% 이상 추진하여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년 넘게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해온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회사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사를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술전략부 이석규 선임



파버카스텔 단풍나무 트루스트 볼펜(3명)

Don't hurry Be safe

현대엘리베이터 안전캠페인



겨울철 한랭 질환, 생활 습관을 바꾸면 막을 수 있어요!

- 01 구두와 장갑은 약간 큰 것을 착용합니다.
- 02 젖은 양말이나 장갑은 사용하지 않아요.
- 03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합니다.
- 04 하루 한 번 이상 손발을 깨끗이 씻고 말려요.
- 05 가능하면 물이나 눈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 06 발과 다리를 자주 움직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합니다.
- 07 두꺼운 양말이나 장갑을 한 켤레 착용하는 것보다 얇은 것 두 켤레를 착용해요.



한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저체온증 장시간 추위에 신체가 노출되어 중심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

동상 피부 조직 심부의 온도가 영하 10℃에 달해 조직의 표면 등이 손상을 받는 증상

백랍병 한랭 환경에서 진동을 유발하는 기계 공구 사용 시 혈관 신경에 작용해 저리고 아픈 증상

중창 보온이 불충분하거나 추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가려움증이 부분적으로 생기는 증상



현대엘리베이터
HYUNDAI ELEVATOR CO., LTD.